

푸른초장의 어린양

대관령에 위치한 양떼목장은, 6월의 푸르름에 잠겨
오름직한 언덕 위에 자리잡고 있었다.

고도가 높은 동산을 올라가다보니,
바람이 새차게 불어 온다.

헝크러진 머리결을 고쳐보려 애쓰다가 문득,
때로는 이런 자연스러움도 좋다고 생각했다.

한참을 올라가니 시야 가득히 양떼들이 보인다.
푸른초장에서 유유히 풀을 뜯어 먹는 양들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신하심을 생각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된 평안함과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장영민

영문사신예술포럼학교 초상사신과 졸업 도표디자인전문학교 비주얼디자인과 졸업
블로그 <http://blog.naver.com/sg00350>

